

1 성서 입문

1.1 성서는 어떤 책인가?

성서(聖書)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얼핏 한 권으로 보이는 이 책은 한 저자가 집필한 단행본이나 전서가 아니라 73 권으로 된 도서(圖書)이며, 오랜 구전(口傳) 전승의 기간을 지나 문자로 기록된 이후만 해도 1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편집하고 작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문학 총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고대 근동 지방 셈족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대사회의 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팔레스티나 출신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로 희랍 문명의 영향을 받아 성문화된 것입니다.

성서는 또한 계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 그 내용이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완성한 것으로 하느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맺으신 새로운 계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합하여 성서(Biblos) 라고 부른 것은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최초였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는 인간의 작품인 동시에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골로사이 1,15 ; I 디모테오 1,17) 넘치는 사랑으로 친구를 대하듯 인간들에게 말씀하신(계시헌장1, 2) 것과 한 민족이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겪게 되는 모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서는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해 줍니다(II 디모테오 3,16 - 17). 책 중의 책인 성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1.2 성서의 형성

기원전 1000년 경(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자기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자기 민족사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세상에 역사(役事)하신 것을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을 한데 묶어서 정경(正經·공식적인 경전)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기원전 450년경까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그 후 기원전 150년경이 되어서야 지금의 구약성서가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약성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형성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자신들의 수효부족과 광범위한 지역을 두루 다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신 활동과 행적을 목격한 증인들이 점차 죽어감으로 선교하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길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목활동을 하면서 필요시에 쓴 편지들을 한데 엮어 현재의 신약성서로 확정되기까지는 30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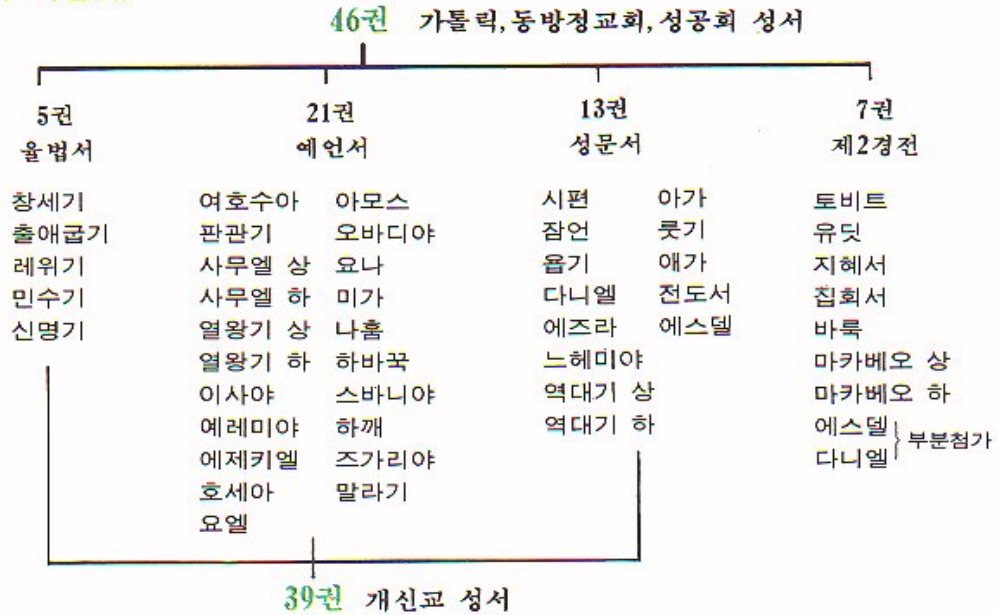
1.3 성서(聖書)와 성전(聖傳)의 관계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을 성서라 하고, 기록되지는 않고 입으로 전해오는 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요한 21, 25)"는 성서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성서에 다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서와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성서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성서의 원천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아도 신약성서의 제일 첫 권이 나온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거의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은 성서가 없었고 오로지 성전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측석에서 받아 속기한 것이 아니므로 성전도 성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주로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 진리, 또는 성서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 줍니다

1.4 성서의 구분

성서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시 그 내용이나 문학적 표현 방식에 따라 세분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1.5 성서의 내용

구약성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던 바를 집대성한 것으로 인류의 기원,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 출애굽, 모세의 율법,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 등 구약시대 전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선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교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들의 활동, 세상의 종말에 관한 기록으로 하느님의 인류 구원사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인류 구원사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세상의 종말로 진행하게 된다고 성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6 성서의 장과 절

성서의 장(章)과 절(節)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226년 프랑스 파리 대학의 학장 랑똥(Etienne Langton)이 성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서를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후 파리의 인쇄업자 에띠엔느가 리용과 파리를 왕래하는 여행 중에 이를 연구하여 1551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장·절 구분이 항상 본문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의미를 알아듣기 위하여 이 장·절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기에 대부분의 성서가 이 구분을 사용할 뿐입니다.

2. 성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서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깊게 읽었으며 언제나 사람들은 깊은 위안을 받곤 하였습니다. 간혹 성서가 사람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거나 때로는 잘못 이해되기도 하지만, 성서는 언제나 인간들이 내심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1 성서는 오래 묵은 골동품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신앙의 원천입니다.

성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주며, 어느 시대건 인간이 신앙한다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성서는 그 시대 그 순간의 원천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성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책으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 있던 신앙 고백문이었기에, 그 시대나 현대나 신앙의 원천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역사서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성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역사를 기록하며 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계시적 구원사상으로 쓴 것입니다. 성서는 문화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는 있지만 문화를 전하고자 쓴 문학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고백했던 신앙과 전통과 삶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곧 오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커 온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오래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네의 표현방식으로 쓴 것이므로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외형적 차이 이면에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끌어 간 참 신앙에 관한 순수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그들의 생활양상에서 삶의 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2.2 성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서는 인류의 역사와 운명에 관한 최후의 양상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답은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신 계시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진리란 인간의 지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에 관한 것이므로 인류가 무심히 넘길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성서는 윤리나 신심, 또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책만은 아닙니다. 성서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제반 관계론'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 인류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 간의 관계,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간이 형성한 사회 관계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결정된 어떤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험적이고 결정되지 않은 신비스런 약속과 보증을 말합니다. 성서는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정해주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역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생각, 지속적으로 노력할 여정 그리고 변함없이 신뢰해야 할 음성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보증과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항상 새로운 결단으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성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차원의 헌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단계의 신뢰를 촉구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본다면, 성서는 우리의 단일한 결정, 신앙심 없는 자세나 자신의 진실을 탐구하지 않는 무성실한 생활 등을 일깨워줍니다.

2.3 성서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서가 무엇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서는 만물의 창조라는 일을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더구나 평가나 비판을 가하지도 않고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고찰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며, 교회의 역사를 조사하고 논증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독자적인 독특한 형태로 학자들의 학문이나 교회의 교리와 타협해야 할 후차적 위치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학문이나 교리의 원천적 자세로서 우선 신앙을 전제하고 대해야 합니다. 즉, 성서는 증명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증언과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서의 핵심 목표는 케뤼그마, 곧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타당성을 따져 봄으로써 성서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글에서 들려오는 신앙의 음성을 받아들이려는 신앙적 자세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4 성서는 분석할 자료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하는 상대자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우리 모두는 서로 인간 고유의 차원이 높고 풍요로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대할 때에도 생명이 없는 글자로 엮은 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서가 들려주는 대화는 하느님의 뜻이 살아 숨쉬는 문맥의 교훈이 독자인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달고 성서를 일단 분석하려는 태도로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성서의 소리는 마음의 귀를 열고 받아들이려는 순수한 자세라야 합니다.

2.5 성서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으며 동시에 다양성을 지닙니다.

성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려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물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한 방향을 향하여 일관성있게 꾸며졌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에페소 4,5-6)"와 같은 일치성은 신·구약을 꿰뚫어 흐르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서의각 편들은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인생체험들이 정리되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향하여 일치된 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여러 개의 단편으로 조각내어 성서 자체가 지향하는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2.6 성서는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흔히 성서를 가깝게 하며 산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성서의 구절들을 많이 암기하여 자주 사용하는 것을 신심이나 신앙상식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성서를 깊이 있고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는 머리를 쓰는 일 보다 마음을 써야하고, 그 결과로 암기보다 삶의 태도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를 잃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활을 조명하여야 합니다. 성서가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안내를 진지하게 받아서 깊은 공감을 느끼며 내적인 결단을 세워 자신의 생활을 개척하고 인생길을 꾸며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2.7 성서는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경전입니다.

불경스러운 마음이나 조잡한 장난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퇴폐케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류의 지혜가 깃든 체제로부터 자신을 따돌리는 것이며, 창조주의 사랑 가득한 안배를 피조물인 자신이 무시하고 그래서 자신을 더욱 비참한 수렁에 몰아넣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지혜와 머리를 맞대고 세대의 노력과 마음을 같이하며 창조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신앙인이랴 성서를 제대로 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